새바람 행복 경북!	**경상북도 보도자료**	2020. 9. 22(화) TEL. 054-880-4322

제 목	담당부서	비 고
① **경북도,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로 2021년 선제대응 나선다** 통합신공항 유치 여세 몰아, 2021년 신규시책 보고회 개최 신공항 건설+행정통합 Two-Track 위에, 9대 분야 90개 사업 역점 추진	정책기획관	
② **경북도, 통합신공항 연계 미래전략 구상 돌입!** '신공항 미래전략회의' 개최... 상향식 의견수렴 나서 산업, 관광, 농수산, 해양 등 전 분야 연계발전전략 마련	미래전략 기획단	
③ **전국리사이클센터 클린세탁기 1천대 기탁! 세 번째 나눔** 전국리사이클센터와 경상북도가 함께하는 세탁기 기탁행사 가져 폐전자제품 회수재활용 협력 업무협약... 친환경적 재활용 체계 구축	자치행정과	
④ **경북도, 지역 장수기업을 100년 지속기업으로 육성 한다** ㈜구일엔지니어링 등 2020년 향토뿌리기업 4개사 신규지정	중소벤처 기업과	
⑤ **이철우 도지사, 시군 부단체장과 추석명절 종합대책 점검** 9.22일, 추석명절 종합대책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 개최 코로나19 방역, 민생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철저 당부	자치행정과	
⑥ **이철우 도지사, 예천시장에서 추석맞이 삼삼오오 장보기 펼쳐** 예천상설시장 일원 소그룹단위 장보기 활동, 민생현장 점검 28일까지 추석대비 특별방역... 2~3일 간격 주요 공동이용시설 집중 실시	민생경제과	
⑦ **경북도, 한국포도수출연합과 함께 샤인머스켓 세계시장 공략한다.** 경북농업기술원, 한국포도수출연합과 포도 수출 증대 위한 MOU체결 '수출 포도 저온유통 체계 구축' 농식품부 시범사업 공동 추진키로	농업기술원 농업환경연구과	
⑧ **경북도,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기업인 간담회 열어** 특구사업자·경상북도·포항시·경북TP 협력으로 특구 사업의 성공 이끌어 산업부·환경부 국비 사업과 연계한 후속사업 유치로 정책적 지원 약속	4차산업 기반과	
⑨ **한돈협회 경북도협의회, 사랑의 한돈 나눔행사 열어** 경북도내 소외계층에 4천5백만원 상당(9톤) 돼지고기 전달	축산정책과	
⑩ **의성 디지털농업 '연구-지도-민간 블렌딩모델' 공모사업 선정** 디지털농업 기술체계 실증 위해 내년부터 2년간 22억원 지원 주요작목 디지털화, 저투입 정밀농업 구현... 농촌인력 문제해결 기대	농업기술원 기획교육과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9. 22(화)】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작 성 자	기획관	정 성 현	
			팀 장	안성렬	주무관 심명섭
		연 락 처	054-880-2113		

경북도,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로 2021년 선제대응 나선다

- 통합신공항 유치 여세 몰아, 2021년 신규시책 보고회 개최 -

- 신공항 건설+행정통합 Two-Track 위에, 9대 분야 90개 사업 역점 추진 -

- 분야별 핵심사업 내년 예산에 우선 반영, 지역 산업발전, 경제활성화로 연결 -

경상북도가 통합신공항 유치를 이뤄낸 여세를 몰아 본격적인 정책 드라이브에 나섰다.

도는 **22일, 이철우 지사 주재로 '2021년 신규시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새롭게 변화된 정책 환경과 내년도 정부 정책방향에 대응한 분야별 세부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는, 경북도가 신공항 유치를 이뤄냈고, 최근에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도 본격화 되는 등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요소가 늘어나고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침체, 저출산·고령화, 일자리 등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는 진단 아래,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와 한국판 뉴딜 등 정부 정책기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❶통합신공항 건설 연계 프로젝트 ❷미래신산업육성 ❸일자리·소상공인 보호 ❹저출생·고령화·지방소멸 극복 ❺복지·안전 경북 조성 ❻문화관광 스마트화 ❼SOC망 확충 ❽농어업·산림 산업화 ❾환동해 시대 선도 등의 9대 분야에 90개 과제**가 보고됐다.

신공항 건설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로 미래 성장 견인**

우선, 도는 공항과 연계한 지역의 새로운 발전방안 연구와 2028년 공항 개항에 맞춰 **경북의 산업·경제지도를 새롭게 바꾸기 위해 '통합신공항 연계산업발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우선 추진**한다.

또한, **통합신공항 공항신도시(항공클러스터) 조성**은 물론, 경북 도내 시·군에서 통합신공항과 연결되는 지방도로 접근성 향상을 위한 **'통합신공항 연계 지방도로 조사 용역' 실시, 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갈등조정협의회(가칭) 구성과 주민상담실**도 설치한다.

미래 신산업 | **✔4차산업혁명 대응,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지난 9월 7일 발표된 '경북형 뉴딜 3+1 종합계획'를 조기에 구체화 시켜 경북의 신 성장동력 확보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를 위해 **'포항 철강산업 고도화 및 미래 첨단소재 클러스터 조성'**, **'경주 양성자가속기 성능 확충(100MeV→200MeV)'**,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2019.7월 선정)와 연계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등을 우선 추진한다.

또한, 자동차부품 생산벨트(경주~영천~경산), 전자산업(구미), 국가혁신클러스터(김천, e-모빌리티)와 연계한 **'미래자동차 부품 산업 벨트 조성'**과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 신규 백신에 대한 수요 증가 대비책으로 **백신·신약 전후방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일자리·소상공인 | **✔ 일자리 늘어나고, 소상공인이 행복한 경북**

일자리 분야에서는, 고용시장 안정을 위해 대표시책인 **경북형 고용안정 뉴딜 패키지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디지털 뉴딜 등에 대응한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과 스타트업 창업 공동구역 기반 구축**에도 역점을 기울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창업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스타트업 파크와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해 경북 G스타트업 벤처타운을 조성**하고,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에 대응한 **사회적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복지·안전·지방소멸 극복 | **✔ 인구유출 방지 + 인구유입 정책 = 활력 경북**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 절벽에 서있는 취약계층 보호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취약계층 생활지원, 긴급복지지원 확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국립 보훈요양원 건립, 재난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노인복지시설 이동형 음압장비 설치**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도시청년 시골파견제와 청년커플 창업지원사업 통·폐합,** 지역내 항공산업과 연계한 **경북형 청년창업특구 조성 등**을 통해 청년 유입 지원책을 강화하고, **인구유출 방지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연구 용역**도 실효성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관광 혁신 ✔ **위드(WITH) 코로나, 비대면 문화관광 활성화**

위드(WITH) 코로나 시대, 스마트폰을 활용한 개별 여행객 중심의 관광 트랜드가 추세로 자리 잡아감에 따라 모바일 시스템에 최적화된 **문화·관광 콘텐츠 발굴과 온라인 상품판매 확대를 위한 경북형 모바일 관광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경주엑스포 민간위탁 시범운영을 통한 콘텐츠 강화, 낙동강 문명길을 따라 펼쳐진 다양한 소국의 문화를 재조명하고 관광자원화 하는 **江나루문화 광역관광자원화 사업**도 본격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SOC망 확충 ✔ **삼국통일 이후, 최대 광역교통망 구축**

도는 통합신공항 건설과 연계한 SOC 확충으로 원활한 산업물류 수송은 물론, 대구·경북권역내 공항 1시간내 접근을 목표로 **대구경북 도로·철도망을 새롭게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동해안의 끊어진 등뼈를 잇는 **영일만대교 건설**, 중부내륙선 연결을 위한 **문경~김천 간 철도건설사업의 조기 예타 통과 등 핵심 2대 과제를 정부에 지속 건의**해 나가는 한편,

구미 국가산단과 항공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북구미IC~군위JC 간 고속도로, 대구~공항간 연결 핵심라인인 서대구~신공항~의성 철도 건설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환동해+농촌 | **✔풍요롭고 살맛나는 三촌(농촌,산촌,어촌)**

동해바다를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프로젝트들도 구체화된다.

영덕에 추진 예정인 **경북형 수산물 푸드 테크단지 및 플랫폼 구축사업**은 2021년 해양수산부 수산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며, 해양심층수에 대한 새로운 개발 수요 증대에 대비해 추진하는 **해양심층수 미네랄 테라피 특화단지**는 우선 타당성 용역을 추진한다.

또한, 미래에너지 과학소양 함양을 위한 **국립 원자력·에너지 미래관 설립**과 **문무대왕 선부 기념공원 조성**도 함께 추진된다.

농업 분야에서는 친환경농산물 확산에 따른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청년들의 초기 영농을 지원하는 **임대형 스마트팜 산업단지 조성**과 지역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센터 건립이** 우선 추진될 계획이며,

산림분야에서는 **국립 산림레포츠진흥센터**와 **국립 한국소나무 연구센터 건립** 등이 역점과제로 보고되었다.

도는 앞으로 **신공항 건설과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는** Two-Track 위에서 이들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며, 대내외 여건과 정부 정책기조에 부합하고, 실효성이 담보된 핵심과제들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역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는 뉴 노멀의 시대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며, 이러한 파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국가와 지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 고 말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신공항을 유치한 저력을 하나로 모으고, 지역의 창조 역량을 결집해서 2021년을 새로운 경북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어 나가자" 고 강조했다. 〈사진별첨〉

붙임 道 분야별 대응방향

1 신공항 건설	○ 거점형 新국제공항 건설 → 대구·경북 공항경제권 조성 ○ 연계산업·물류망 육성 → 경북의 산업·경제 고도화
2 미래 신산업 육성	○ 디지털·그린뉴딜 선도 → 5G, 이차전지, 바이오 생태계 구축 ○ 산단 대개조 → 산단 스마트화 + 新성장산업 집적
3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보호	○ 기업 성장지원 + 인력 수요 매칭 → 고용안정 뉴딜 실현 ○ 비대면 서비스 수요↑ → 온라인 플랫폼 지원 강화
4 저출생·고령화 지방소멸 극복	○ 청년 유입 및 정주지원 정책 강화 → 저출생 해결 ○ 인구유출 방지·인구유입 정책 강화 등 지방소멸 체계적 대응
5 복지 확충 안전 경북	○ 어르신·장애인 등 수요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기반 확충 ○ 지진·태풍·감염병 등 현장중심 재난·재해 대응 시스템 구축
6 문화관광 스마트화	○ 모바일 관광 플랫폼 구축 등 문화·관광 콘텐츠 다변화 ○ 문화·관광 혁신거점 구축 + 시군별 관광인프라 특성화
7 SOC망 확충	○ 신공항 연계 SOC망 확충으로 지역 균형발전 도모 ○ 대구·경북권역 접근성(1시간)↑ → 교통지도 大역사적 변화 모색
8 농어업·산림 산업화	○ 디지털 전환 통한 농촌인력 문제해결 및 저투입 정밀농업 구현 ○ 산림분야 신산업 테스트베드 구축 → 산림뉴딜 일자리 창출
9 환동해 시대 선도	○ 동해안 해양자원 활용 → 21C 환동해시대 구체화 ○ 원자력·수소연료전지·신재생 등 국가에너지 연구 산업 메카 조성

【 대구경북 행정통합 】

◆ 명　　칭 : (가칭) 대구경북특별자치도 *2022. 6월 : 통합도지사 선출 및 특별자치도 출범

◆ 통합방식 : 광역/기초 자치계층 2층제 유지, 대구+경북 완전통합 통한 완전자치 지향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9. 22(화)】	담당부서	미래전략기획단		
		작 성 자	단 장	김 민 석	
			팀 장	구광모	주무관	이동진
		연 락 처	054-880-4496		

경북도, 통합신공항 연계 미래전략 구상 돌입!

- ‘신공항 미래전략회의’ 개최... 상향식 의견수렴 나서 -
- 산업, 관광, 농수산, 해양 등 전 분야 연계발전전략 마련 -

경상북도는 22일 ‘통합신공항 연계 경북 미래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신공항 건설과 연계한 지역발전 청사진 구상에 본격 돌입했다.

신공항 미래전략회의는 신공항 건설을 연계한 각 분야 정책융합을 통해 지역발전 그랜드 디자인을 구상하고 기획·조정하는 최고 컨트롤타워로, 2028년 통합신공항 개항과 함께 경북 전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각종 인프라의 선제적 구축을 목표로 한다.

경북도는 정부 항공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공항 구상과 연계한 지역발전 전략을 동시에 수립하기로 하고 △공항 관련 상위·연관 계획, △국내외 공항 및 배후경제권 사례, △항공관련 산업의 범위·현황, △공항경제권 및 물류특화공항, △통합신공항 SWOT 등을 조사·분석해 15개 미래전략 초안을 도출했다.

도는 전략 초안을 바탕으로 내달부터 외부 전문가 워킹그룹을 운영하며 분야별 간담회, 세미나, 시군 전략회의 등을 개최하고 연말까지 기본전략 및 시책을 보고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각종 연구용역을 시행해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및 경북도의 각종 중장기 계획에 반영을 추진한다. 또한 중앙부처 및 대구광역시와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국비확보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경북도의 신공항 미래전략회의는 통합신공항 건설을 도정 각 분야의 미래전략 핵심 동인으로 설정해 공직사회 추진 동력을 높이는 방식이다.

또한 대규모 연구용역 발주, 계획 수립, 실행으로 이어지는 하향식(Top-down) 행정이 아니라, 공항 규모와 유형이 결정되는 과정에 대응하면서 분야별, 지역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점차적으로 완성도를 높여가는 상향식(Bottom-up) 행정으로 유연성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대역사인 통합신공항 건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발 빠르게 전략을 수립하고 과감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혁신적 공항경제권을 조성하고 연계 인프라를 구축해 공항 건설의 파급효과가 지역 전체에 균형 있게 일어나도록 지혜와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회의후 송부>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9. 22(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작 성 자	과 장	정 진 환	
			팀 장	방주문	주무관 황영석
		연 락 처	054-880-2812		

전국리사이클센터 클린세탁기 1천대 기탁! 세 번째 나눔

- 전국리사이클센터와 경상북도가 함께하는 세탁기 기탁행사 가져 -

- 폐전자제품 회수·재활용 협력 업무협약... 친환경적 재활용 체계 구축 -

경상북도는 22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전국리사이클센터,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저소득가정에 세탁기 1천대를 전달하는 ‘코로나19 극복, 클린세탁기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도민들에게 관심과 배려를 통해 희망을 전달하고,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는 의미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철우 도지사, 고우현 도의장,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장인 백선기 칠곡군수, 신현수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세탁기 기부자인 EFRC(친환경 자원순환 클러스터) 김영선 회장 등 전국 리사이클센터 9개 지역 대표들, 재능기부자인 가수 김경호, 전 농구선수 우지원, 전 축구선수 송종국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탁행사는 식전 문화공연, 개회 및 국민의례, 폐가전제품 수거 홍보영상 상영, 주요내빈 인사말씀, 세탁기 기탁증서 수여, 감사패 전달, 폐전자제품 회수·재활용 협력 업무협약식 순으로 진행됐다.

세탁기 기탁증서 수여는 전국리사이클센터를 대표해 도내 업체인 ㈜영천알씨 허성필 대표이사가 기탁증서가 붙여져 있는 세탁기를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현수 회장에게 전달했으며,

신현수 회장은 전달받은 세탁기를 도내 저소득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장인 백선기 칠곡군수에게 전달했다.

이어 이철우 도지사는 세탁기 기탁행사에 재능기부로 전국 리사이클센터와 함께하면서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준 김경호(가수), 우지원(전 농구선수) 등 연예인·스포츠스타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했다.

* 김경호(가수), 길건(가수), 최재훈(가수), 윤정수(개그맨), 이연수(탤런트), 우지원(전 농구선수), 송종국(전 축구선수), 김용대(전 축구선수), 마해영(전 야구선수)

이어진 폐전자제품 회수·재활용 협력 업무협약식에서는 도내 발생한 폐전기·전자제품을 안정적으로 회수해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는데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으로 경상북도,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 전국리사이클센터 간 협약을 체결했다.

전국리사이클센터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가전제품을 무상수거 후, 분해·해체·파쇄 작업을 거쳐 재활용 원료로 재생산하는 친환경기업으로 전국에 9개 센터를 두고 있으며, 2015년부터 지금까지 15회에 걸쳐 11개 기관에 6100여대의 세탁기를 기탁하는 등 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부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경북도는 전국리사이클센터로부터 2017년 250대, 2019년 1100대의 세탁기를 기증받아 도내 다문화가정, 저소득가정, 태풍피해 가정,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했으며, 이번에 기증받는 세탁기 1000대도 시군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가정에 골고루 전달할 계획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해 준 전국리사이클센터 대표들과 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임에도 재능기부를 위해 시간을 내준 연예인·스포츠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경북도는 앞으로도 다각적인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없는 행복경북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행사후 송부〉

참고

코로나19! 한방에 날리자!

클린 세탁기 기탁행사 계획

행사개요

- ❍ 일　　시 : 2020. 9. 22.(화) 16:50~17:50
- ❍ 장　　소 : 도청 다목적홀 (안민관 1층)
- ❍ 참석인원 : 40여명
  - 도지사, 도의장, 도공동모금회장, 도시장군수협의회장 등
  - 전국RC센터 대표(9명), 재능기부자(연예인 등 20명) 등
- ❍ 기탁물품 : 세탁기 1,000대
- ❍ 주　　최 : 전국리사이클센터, 경상북도,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
- ❍ 주　　관 :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시간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6:50~17:00	10′	○ 식전공연	
17:00~17:02	2′	○ 개회 및 국민의례	
17:02~17:05	3′	○ 홍보영상 상영(2편)	
17:05~17:10	5′	○ 내빈소개	
17:10~17:25	15′	○ 인사말씀	RC대표, 모금회장, 시장군수협의회장, 도의장, 도지사
17:25~17:30	5′	○ 기탁증서 수여	
17:30~17:40	10′	○ 감사패 수여	
17:40~17:45	5′	○ 재활용협력 협약 체결	리사이클센터-경상북도-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
17:45~17:50	5′	○ 기념촬영	

폐전자제품 회수 · 재활용 협력 네트워크 구축

업 무 협 약 서

경상북도, 도내 기초자치단체, 권역별 친환경리사이클링센터는 경상북도 관내에서 발생되는 폐전자제품의 냉매가스 및 중금속 등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원활한 회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폐전기 · 전자제품 회수 · 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경상북도 지역 내에서 발생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사용이 종료된 폐전기 · 전자제품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회수하여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제2조(기간) 협약 기간은 협약체결일 2020. 9. 22. ~ 2022. 9. 21.까지로 하며, 2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협력사항) 경상북도, 도내 기초자치단체, 권역별 친환경리사이클링센터는 폐전자제품의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다음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경상북도는 관내에서 발생되는 폐전자제품이 안정적으로 회수되어 친환경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온 · 오프라인을 통한 대도민 홍보에 적극 노력한다.
2. 기초자치단체는 관내 재활용선별장, 공공집하부지 등 「폐가전무상방문수거사업」을 위한 부지제공 및 상 · 하차, 관련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중소형 폐가전 수거함 설치 등 폐전자제품 회수인프라 구축에 적극 협력한다.
3. 경상북도와 기초자치단체는 불법적인 경로로 폐전자제품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도내 폐전자제품의 무분별한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4. 리사이클링센터는 관내에서 회수된 폐전기 · 전자제품에 대해 최대한 재활용 처리하고, 일부 함유된 환경유해물질과 온실가스인 냉매를 안정적으로 회수 · 보관하여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도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포용적 사회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조(비밀유지) 당사자 간 상호교류를 통하여 취득한 상대기관의 일체의 자료와 정보를 포함한 기타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5조(협의 조정) 기타 본 협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협의할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 또는 결정한다.

제6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 당사자가 협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되며, 업무협약서상의 제반 조건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며 서면으로 변경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한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본 협약서의 내용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들이 서명하고 각 1부씩 교환한다.

2020년 9월 22일

전국리사이클센터 사 장	경 상 북 도 도 지 사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 회 장
_____	_____	_____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9. 22(화)】	담당부서	일자리경제실 중소벤처기업과		
		작 성 자	과 장	이 강 학	
			팀 장	김영길	주무관 조영철
		연 락 처	054-880-2684		

경북도, 지역 장수기업을 100년 지속기업으로 육성 한다

- ㈜구일엔지니어링 등 2020년 향토뿌리기업 4개사 신규지정 -

경상북도는 22일 도지사 접견실에서 올해 신규 지정된 향토뿌리기업 4개사에 인증패를 수여했다.

경상북도는 2013년부터 대(代)를 이어 30년 이상 전통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를 ‘향토뿌리기업’으로 지정하고, 옛 모습을 간직한 보존 가치가 높은 건축물을 ‘산업유산‘으로 지정하고 있다. 올해 4개사 신규 지정으로 향토뿌리기업은 62개사로 늘어났다.

올해는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향토뿌리기업 7개사, 산업유산 1개소 중 향토뿌리기업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일엔지니어링, △㈜새날테크텍스, △영남요, △의성엿이 2020년 향토뿌리기업으로 최종 지정됐다.

㈜구일엔지니어링(대표 백승균, 구미시)은 1988년 설립된 디스플레이, 반도체 산업과 산업자동화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TFT LCD, OLED, Flexible Display 및 반도체 장비를 제작하고 있다.

특히, 고객이 요구하는 최적의 생산 공정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제조설비, 자동검사시스템 등을 개발해 제조현장에 투입하는 등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혁신을 통해 첨단산업 부문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새날테크텍스(대표 조정문, 구미시)는 1980년에 선친이 설립한 새날섬유공업사를 모태로 현재 산업용 원단을 생산하고 있는 장수 섬유기업으로, 기존에 수입에 의존하던 자동차용 에어백 원단을 주 생산품으로 생산하고 있다.

특히 2003년에는 사이드커튼 에어백 생산설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국내 생산량 전량을 생산하고 있으며, 스마트센서에 의해 작동되는 인체보호용 에어백 조끼, 헬멧과 방탄복에 사용되는 고품질의 아라미드 직물을 개발하는 등 첨단기술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영남요(대표 김정옥, 문경시)는 9대째 한국 전통도자기의 가업을 계승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사기장 가문이다. 대표인 백산 김정옥 선생(7대)은 1991년 도예 부문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이 되었고 1996년 국가 무형문화재 사기장으로 지정됐다.

영남요는 2006년 개관한 문경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관에서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 및 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한국 전통도자기의 우수성을 알리며 문화유산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아들인 김경식씨(8대)와 손자 김지훈씨(9대)가 조선백자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명실상부한 한국 전통도자기 대표 뿌리기업이다.

의성엿(대표 권주혁, 의성군)은 1969년 선친이 설립한 의성제이소를 가업 승계해(2006년) 현재까지 전통 제조방식으로 조청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옥분쌀엿기름을 주성분으로 방부제와 표백제를 일체 사용하지 않아 옛날 조청의 맛을 느낄 수 있다.

권주혁 대표는 경북 향토뿌리기업 지정을 기반으로 지역의 관광 자원과 연계해 전통 제조방식의 조청 생산을 확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인증패 수여식에서 “장수기업은 오랜세월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어온 경북도의 소중한 자산으로 제품개발과 판로확대, 그리고 인근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100년 이상 지속 가능한 전통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전통 장수기업을 발굴해 시대 변화에 맞추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행사후 송부〉

참고

2020년 향토뿌리기업 인증패 수여 계획

❖ '20년 신규지정된 향토뿌리기업 대표에게 인증패를 수여하여 경상북도 전통 장수기업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

❑ 개 요

○ **일 시** : 2020. 9. 22(화) 14:00

○ **장 소** : 접견실

○ **참석대상** : **지사님,** 신규 지정기업 대표* 등

* 6명 정도(기업 4, 향토뿌리기업협의회 2)

○ **주요내용** : 향토뿌리기업 인증패 수여 및 기념촬영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지정 개요

▹ 지정근거 :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지원 조례」 제10조

▹ 목 적 : 도내 30년이상 전통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의 지원 및 육성

▹ 시행일자 : 2013년부터 매년 지정 ※ **총 62개사 지정**

▹ 주요지원 :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디자인, 마케팅, 환경정비사업 등)

❑ 신규 지정업체 현황

연번	업체명	업 종	대표자	설립연도	소재지
1	㈜새날테크텍스	직물제조	조정문	1988	구미시
2	㈜구일엔지니어링	검사장비	백승균	1988	구미시
3	영남요	도자기	김정옥	1984	문경시
4	의성엿	조청, 엿	권주혁	1969	의성군

❑ 시간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4:00		개 회	
14:00 ~ 14:05	5′	인증패 수여	지사님
14:05 ~ 14:10	5′	기념촬영	〃
14:10 ~ 14:20	10′	환 담	〃
14:20 ~		폐 회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9. 22(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작성자	과 장	정 진 환	
			팀 장	이치헌	주무관 장화영
		연락처	054-880-2828		

이철우 도지사, 시군 부단체장과 추석명절 종합대책 점검

- 9.22일, 추석명절 종합대책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 개최 -
- 코로나19 방역, 민생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철저 당부 -

경상북도는 22일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이철우 도지사 주재로 추석명절 종합대책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영상회의는 편안하고 안전한 추석명절을 위해 경북도가 마련한 추석명절 종합대책 분야별 실행 과제들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회의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전국적 인구이동으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경북도와 23개 시군의 철저한 방역대책 추진상황 점검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와 잇따른 태풍 피해로 침체된 지역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먼저 추석 명절대책과 관련해 경북도 각 실국별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시·군 협조사항을 전달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이후에는 이철우 도지사가 직접 시·군 부단체장과 영상대화를 연결해 23개 시·군의 명절 준비상황 및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철우 도지사는 연휴기간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귀성객들의 고향방문 자제를 권고하고 방역수칙 준수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방역 실시를 지시했다.
또한 연휴기간 중에도 코로나19 실시간 대응과 의심·확진 환자에 대

한 신속한 진단검사와 치료를 실시해 선제적이고 빈틈없는 방역·의료 대응을 주문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시·군별 실정에 맞는 맞춤형 대책 추진과 소비활성화를 통한 내수진작에도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했다. 또, 지난 여름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인한 농·축산물의 물가 상승이 우려됨에 따라 추석 제수용품 수급 안정에도 면밀히 살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이 도지사는 도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과 화재취약시설의 안전점검 실시와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각종 재난·재해와 안전사고 대응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지시했으며, 시군 주요 도로 사전정비를 통해 귀성객들의 안전한 수송대책을 추진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추석 명절기간 동안 각 분야별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귀성객과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공직자 모두가 비상 상황임을 인식해 긴장의 끈을 놓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따뜻하게 보살피고 챙겨 행정공백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9월 20일부터 10월 4일까지 2주간을 추석명절 종합대책 중점추진기간으로 정하고 4대 분야(▲방역·의료 ▲경제활성화 ▲안전·교통 ▲생활안정), 12개 중점과제(비상방역체계 및 의료대책, 소비촉진,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물가안정, 재난재해 예방, 교통수송, 민생안정 등)에 대해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사진 회의후 송부>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9. 22(화)】	담당부서	일자리경제실 민생경제과		
		작성자	과 장	정 철 화	
			팀 장	정진오	주무관 석연정
		연 락 처	054-880-2655		

이철우 도지사, 예천시장에서 추석맞이 삼삼오오 장보기 펼쳐

- 예천상설시장 일원 소그룹단위 장보기 활동, 민생현장 점검 -

- 28일까지 추석대비 특별방역... 2~3일 간격 주요 공동이용시설 집중 실시 -

경상북도는 22일 예천5일장이 열리는 예천읍 소재 예천상설시장에서 추석 명절맞이 장보기를 코로나19사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삼삼오오’ 형태로 진행했다.

도의 이번 추석맞이 전통시장 삼삼오오 장보기 행사는 코로나 여파 등으로 인한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힘들어 하는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지역 민생경제에 안정과 활력 회복을 위해 실시됐다.

이날 예천상설시장에서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한 예천군수, 지역 도의원, 공무원 등 40여 명이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소그룹으로 나누어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장보기를 실시했다.

이 도지사는 추석 제수용품과 성수품 등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직접 추석 장을 보면서 어려운 전통시장의 경기를 몸소 체감하고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쇼핑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역상황도 꼼꼼히 점검했다.

또, 시장내 한 식당에서 가진 간담회를 통해 상인회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추석명절 민생현장을 직접 살폈다.

경북도는 ‘추석맞이 삼삼오오 전통시장 장보기’를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전통시장 이용 분위기는 유지하되 대규모 집중 장보기가 아닌 기관별 소규모 단위로 장

보기 횟수를 늘려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도는 종전의 실·국·본부(20~50명)단위로 이용하던 장보기를 과(5~10명) 또는 팀(3~5명)단위로 대폭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언택트 소비 추세에 따라 우체국전통시장, 온누리전통시장과 같은 온라인 쇼핑몰 장보기 이용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한편, 경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으로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주민들의 발걸음이 줄어든 전통시장에 도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장을 볼 수 있도록 고객맞이 차원에서 시장 내 방역과 위생관리 등 코로나19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추석맞이 전통시장 방역 추진상황을 시·군과 함께 점검했으며, 1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2주간을 추석대비 전통시장 집중 방역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생활방역단'을 비롯해 시·군과 상인회가 함께 2~3일 간격으로 시장 주출입구와 고객쉼터,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을 실시한다. 특히 정기장날인 5일장의 경우 그 전날에 반드시 방역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장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서비스가 될 수 있다"라며, "상인들 스스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진별첨>

참고

추석맞이 「예천상설시장」 삼삼오오 장보기 계획

◈ 이번 추석 명절맞이 전통시장 이용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삼삼오오 형태로 간소하게 장보기 행사를 추진**하고자 함.

추진개요

○ 일　　시 : 9. 22(화) 11:00 ~ 11:40

○ 장　　소 : 예천상설시장 * 예천군·읍 동본리 553번지

○ 참석인원 : 40여명 * 5~10명씩 소그룹으로 분산 장보기 활동

* **도지사님**, 예천군수, 도의원(도기욱 부의장, 안희영 위원장), 공무원(민생경제과, 교통정책과, 경북도립대 직원) 등

○ 주요내용

- 에천상설시장 추석명절 장보기 이용 캠페인
- 상인회 관계자와의 간담회 등

< 예천상설시장 현황 >

▸예천군 상설시장1길 3-1일원 ▸부지 8,350㎡, 건물 3,794㎡
▸개설 1955.12월 ▸상인회장 안희윤 (민속떡집, ***-****-1779)
▸77개 점포(상설) ▸장날 2, 7일 ▸주요품목 : 농수산물, 잡화 등

시간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1:00		이동(도청 → 예천상설시장)	
11:00~11:30	30′	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 **(하차)** 파리바게뜨 앞 건너 안동통로 ⇨ **(영접)** 상인회장, 예천부군수, 일자리경제실장	예천상설시장
11:30~11:40	10′	② **상인회와의 간담회** ※ 예천군수, 상인회 관계자 등 10여명	시장內 어울림쉼터
11:40~		이동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9. 22(화)】	담당부서	농업기술원 농업환경연구과			
		작 성 자	과 장	류정기		
			팀 장	장길수	담당자	류정아
		연 락 처	054-320-0232			

경북도, 한국포도수출연합과 함께 샤인머스캣 세계시장 공략한다.

- 경북농업기술원, 한국포도수출연합과 포도 수출 증대 위한 MOU체결 -

- '수출 포도 저온유통 체계 구축' 농식품부 시범사업 공동 추진키로 -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22일 한국포도수출연합(대표 황의창)과 '수출 포도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수출포도(샤인머스캣) 저온유통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번 협약은 포도 수출 주산지인 경상북도와 수출포도 통합조직인 한국포도수출연합(주)가 함께 포도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신속하게 현장에 적용시켜 포도 수출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한국포도수출연합(주)는 67개의 포도생산자단체와 56개의 수출업체가 회원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해 회원사의 수출액이 우리나라 전체 포도 수출액의 97.9%를 차지하는 국내 대표 수출 통합조직이다.

이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수출포도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증대를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며, 연구결과의 적용을 확대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포도 수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술컨설팅, 교육지원에도 상호협력 할 것을 약속했다.

경북농업기술원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올해 자체개발한 파렛트 단위 장기저장기술을 적용한 '수출 샤인머스캣 저온유통체계구축 시범사업(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 선정)'을 한국포도수출연합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향후 '샤인머스캣 저온유통 단계별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

최근 중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장에서 열풍이 일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 샤인머스캣을 이번에 개발한 파렛트 단위 장기저장기술을 활용하면 수출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어 물량조절과 수출가격 안정화 등 수출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의창 한국포도수출연합 대표이사는 “한국포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수출경쟁력 있는 품종의 육성, 고품질 포도의 생산, 장기저장시스템의 구축 등 신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라며, “경상북도가 보유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 품질의 포도를 생산해 한국 포도산업의 선봉에서 수출 증대에 앞장서겠다” 라고 밝혔다.

최기연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한국포도수출연합과 손잡고 저장·유통기술 뿐만이 아니라 수출 대상국에 따른 병해충 방제력 개발, 수출 품종 다변화 등 수출증대를 위한 종합 기술 체계를 확립해 나가는데 힘쓰겠다” 라고 전했다.

<사진 행사후 송부>

참고

경상북도농업기술원-한국포도수출연합(주)

포도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목 적

○ 포도 수출경쟁력 강화 및 수출 증대를 위한 상호 기술 협력체계 구축

❑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 9. 22(화), 16:00~17:00, 기술원 2층 회의실

○ 참석자 : 10명 내외

- (농업기술원) 최기연 원장, 권태룡 연구개발국장 등
- (한국포도수출연합) 황의창 대표이사, 조두현 전문위원,
  고산영농조합 김형수 대표, 산떼루아 김동근 대표
  에이플영농조합 황상헌 대표

○ 협약 내용

- 수출 포도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증대를 위한 공동 연구 추진
  (수출 포도 저장 및 유통기술, 재배 및 병해충 방제 기술 등)
- 포도 수출 관련 연구결과의 적용확대 및 시범사업 추진
- 포도 수출 관련 정보 공유, 기술 컨설팅, 교육지원 등

❑ 주요 일정

진행 내용	시 간	비 고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16:00~16:10	농산물이용팀장
● 인사말 -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 - 한국포도수출연합(주) 대표이사	16:10~16:20	
● 회사 소개	16:20~16:30	한국포도수출연합
● 장기저장기술 및 시범사업 소개	16:30~16:40	류정아연구사
● 협약서 서명 및 교환	16:40~16:50	
● 기념촬영	16:50~17:00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9. 22(화)】	담당부서	과학산업국 4차산업기반과		
		작 성 자	과 장	박 인 환	
			팀 장	홍인기	주무관	오혜림
		연 락 처	054-880-2476		

경북도,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기업인 간담회 열어

- 특구사업자·경상북도·포항시·경북TP 협력으로 특구 사업의 성공 이끌어 -

- 산업부·환경부 국비 사업과 연계한 후속사업 유치로 정책적 지원 약속 -

경상북도는 22일 포항시청 회의실에서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7월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처음으로 특구사업자 대표자들과 경상북도, 포항시가 함께 모이는 자리로, 특구사업 추진현황 설명 및 중간점검, 신규사업 소개, 애로사항 청취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특히 올해 7월 11개 사업자가 추가로 지정되어 새롭게 지정된 특구 사업자들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추진 중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경상북도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은 전기차 수요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해 사용 후 전기차 배터리의 재활용, 재사용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경북도는 특구 사업을 통해 중앙정부가 고민하고 있던 사용 후 전기차 배터리의 활용 기준을 만들어 제시하고, 이에 따라 민간 기업이 사용후 배터리 사업 시장에 뛰어 들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게 된다.

특히 이번 특구 사업은 규제자유특구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혀 지난 1월 GS건설의 1천억 투자 협약식에 대통령이 직접 방문했으며, 기

업의 직·간접투자로 약 1조억원에 이르는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는 등 혁혁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

이에 올해 5월에는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특구 성과평가에서 가장 높은 '우수' 등급을 받아 대내·외적으로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을 꼽게 되었다.

특구 사업 추진도 순조롭게 이루어져 올해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배터리 재사용 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한 응용제품에 대한 인증 기준을 만들고, 응용제품 사업 시장이 새롭게 열릴 전망이다.

또, 11월부터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 '재활용 사업'을 착수해 전량 수입하고 있던 니켈, 망간, 코발트 등 이차전지 소재 자립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특구 사업자들은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에 선제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기대감을 나타내었으며, 중기부와 경북도, 포항시, 사업 주관기관인 경북테크노파크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사업이 종료되는 2021년 이후에도 경상북도와 포항시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상북도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정책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먼저 리사이클링 산업은 기존 특구 사업 성과와 연계해 인프라를 확충하고 추가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부 후속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을 위해 산업부 대규모 국책사업을 유치해 경상북도 혁신의 한 틀로 이차전지 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할 것이라 밝혔다.

경상북도 박인환 4차산업기반과장은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

지정 계기로 이차전지 산업 전·후방기업이 집적되어, 포항은 명실상부 이차전지 선도 혁신 지역이 되었다”면서, “특구 사업자들이 두려움없이 리사이클링 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경상북도가 가진 정책수단을 동원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진 행사후 송부>

참고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2020년도 경북 배터리 특구사업자 대표자 간담회 개최계획(안)

■ 경북 배터리 특구사업의 추진현황 공유를 통해 상호 이해 증진
■ 특구사업자의 애로 청취 등을 통한 사업 개선 방안 모색

1 행사개요

□ **행 사 명 :** 2020년도 경북 배터리 특구사업자 대표자 간담회

□ **일시/장소 :** 2020.09.22.(화) 16:00~18:00 / 포항시청 5층 소회의실

□ **참석대상 :** 특구사업자 대표자 및 사업관계자 등

□ **내 용**

○ 경북 배터리 규제자유특구 추진현황
- 중기부 규제자유특구사업
· 사업개요, 세부 실증별 추진방향, 인프라(장비, 센터건립) 현황
- 신규사업 소개

○ 특구사업자별 애로사항 청취

2 세부일정(안)

시간계획		내용
16:00 ~ 16:10	10′	안내 및 등록
16:10 ~ 16:20	10′	인사말
16:20 ~ 16:50	30′	특구사업 추진현황 설명
16:50 ~ 17:30	40′	특구사업자별 애로사항 청취
17:30 ~ 18:30	60′	마무리 및 식사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9. 22(화)】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국 축산정책과		
		작 성 자	과 장	이 희 주	
			팀 장	이재식	주무관 홍현표
		연 락 처	054-880-3417		

한돈협회 경북도협의회, 사랑의 한돈 나눔행사 열어

- 경북도내 소외계층에 4천5백만원 상당(9톤) 돼지고기 전달 -

경상북도는 22일 추석을 맞아 (사)대한한돈협회 경북도협의회가 기증한 돼지고기 4천5백만원 상당(9톤)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북지회에 전달하는 ‘사랑의 한돈 나눔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도지사, 최재철 대한한돈협회 경북도협의회장, 정동의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기증한 돼지고기는 도내 562개소 사회복지시설(노인시설, 일반시설 등)의 1만 7천여 명에게 전달 될 예정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한돈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는 한돈협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한돈협회의 분뇨·악취 등 양돈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한돈협회 경북도협의회는 매년 경북도를 통해 도내 사회복지시설 등에 돼지고기를 기부하는 한돈 나눔행사를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도 지난 3월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성금 1억원과 돼지고기 13톤(1억원 상당)을 기부한 바 있다.

<사진 행사후 송부>

참고

한돈협회 사랑의 한돈 나눔행사 개최

❖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사)대한한돈협회 경북도협의회**에서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돼지고기 기증으로 사랑나눔 실천과 소비촉진 도모를 위해 『**사랑의 한돈 나눔행사**』 개최

행사개요

○ 일　　시 : 2020. 9. 22(화) 14:30

○ 장　　소 : 도지사 접견실

○ 주최/주관 : (사)대한한돈협회 경북도협의회

○ 기증대상 : 사회복지시설(562개소, 17,093명)

○ 참 석 자 : 5명 정도

- **도지사**, 한돈협회 도협의회장 및 임원(3명),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무처장

기증절차

○ 공급일자 : 2020. 9월말~

○ 기증물품 : 돼지고기 9톤(45백만원 상당)

○ 공급방법 : 공급업체 → 배송업체 → 사회복지시설

※ '20년 한돈협회 : 3월 1억원(성금), 1억원 상당(돼지고기 13톤) 기증

➢ **지사님 하실 일 : 한돈 기증 및 기념촬영**

한돈협회 경북도협의회 및 현황

① **대한한돈협회 경북도협의회**

- 회장 : **최재철**(성주, 12천두 사육), 회원수 : 600여명(전국 3,800여명)

② **사육현황**(통계청, '20.6) : **707호, 1,487천두**(전국 11,088천두의 13.4%, 전국 3위)

③ **가격동향**

- 도매가격 '19.9) 4,791원/kg → '20.3) 3,915 → '20.8) 4,304 → '20.9.17) 4,909
- 수취가격 406천원/110kg 332 365 416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9. 22(화)】	담당부서	농업기술원 기획교육과		
		작 성 자	과 장	이 상 택	
			팀 장	남문식	주무관 김성연
		연 락 처	053-320-0341		

의성 디지털농업 '연구-지도-민간 블렌딩모델' 공모사업 선정

- 디지털농업 기술체계 실증 위해 내년부터 2년간 22억원 지원 -

- 주요작목 디지털화, 저투입 정밀농업 구현... 농촌인력 문제해결 기대 -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연구-지도-민간 블렌딩모델 사업' 공모에 의성 디지털농업 실증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내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22억원을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내·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류 및 발표심사를 거쳐 전국 22개 신청 시군 중 '의성 디지털농업 실증사업' 등 4개 시군의 사업이 선정*됐다.

* 선정결과 : 경북 의성(디지털농업 실증), 충남 부여(버섯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전북 고창(복분자 식초 생산기반 구축), 전남 해남(아열대작목 육성)

연구-지도-민간 블렌딩모델 사업은 중앙-지방 협약을 통해 공동목표 설정, 지역맞춤형 통합 기술지원으로 지역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의성 디지털농업* 실증사업' 은 농업인구 감소·고령화에 따른 농촌인력 문제를 디지털농업 전환을 통한 저투입 정밀농업 구현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과, 마늘, 벼 등 의성군 주요작목을 대상으로 △재해예방 시스템(기상센서, 조기경보시스템, 미세살수장치 등), △스마트 관수, △농작업 무인화(자율주행 트렉터·이앙기, 자율방제 드론 등) 등 기술을 실증하게 된다.

* 디지털농업 : 빅데이터, AI, 지능로봇 등을 통해 농업 관련 현상을 디지털화하고 그 솔루션을 현장에 환류하여 정밀농업 구현

이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주요작목에 대한 디지털농업 기초기반기

술을 확보하고 향후 적용 작목 및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기연 경상북도농업기술원원장은 “이번 연구-지도-민간 블렌딩모델 공모사업을 통해 경북은 디지털농업 관련 기초 기반기술을 축적하고, 향후 디지털농업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사진없음>

디지털농업 기술체계 실증사업

현황 및 필요성

○ 농업인구 감소·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로 농업 지속가능성 위협

○ **디지털농업* 전환을 통한 농촌인력 문제해결 및 저투입 정밀농업** 구현

* 디지털농업 : 빅데이터, AI, 지능로봇 등을 통해 농업 관련 현상을 디지털화하고 그 솔루션을 현장에 환류하여 정밀농업 구현

< 사업추진 경과 >

▶ '20. 3~7월 : 농진청-기술원-의성군 디지털농업 기술지원 실무협의회(6회)

▶ '20. 8월 : '21년 연구-지도-민간 블렌딩 전략모델화 사업 공모(2년간, 22억원)

→ 2021년도 "연구-지도-민간 블렌딩 전략모델화" 공모사업 선정

사업개요

○ 기간/위치 : 2021 ~ 2022년(2년간) / 의성군

○ 사 업 비 : 2,200백만원(국비 1,000, 시군비 1,000, 출연금 200)

○ 사업내용

- **마늘 : 파종, 수확자동화, 재해예방 관수기술 지원(봉양면)**
- **사과 : 정밀 관수, 농업기상 조기경보시스템 설치(옥산면)**
  - 『재해예방 시스템』 → 기상센서, 조기경보시스템, 미세살수장치 설치 등
  - 『스마트 관수』 → 사과 정밀 점적관수 등 스마트 관수제어 시스템 구축
- **벼 : 농작업 자동화 및 수질·기상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안계면)**
  - 『농작업 무인화』 → 자율주행 트렉터.이앙기, 자율방제 드론, 자동 물꼬조절 등

연도별 예산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기투자	2021년	2022년
계	2,200		1,100	1,100
국비	1,000		500	500
시군비	1,000		500	500
기타(출연금)	200		100	100

향후계획

○ 2020. 9 ~ 12월 : 세부계획 수립 및 협약체결(농진청-농업기술원-의성군)

○ 2021년 이후 : 디지털농업 기술 지원 및 확대 보급(농업기술원)